



간화정로  
월암 스님 지음  
현대북스  
1만8000원

# 행복에 이르는 선수행의 나침반

간화선에 대한 명철한 이해와 코끝시린 수행자의 삶을 통해 선수행의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지침서가 발간됐다.

지리산 벽송사 벽송선원에서 정진중인 월암 스님은 최근 펴낸 <간화정로(看話正路)>에서 선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깨달음 이후의 경지에 국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스님은, 선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고통이난 행복으로 둘러쓰는 깨어있고 열려 있는 삶 자체라고 말한다.

그래서 조사선의 핵심이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내가 숨쉬고 있는 바로 여기에서 주인이 되어 해탈의 진실세계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동진출가하여 선수행으로 일관해온 월암 스님은 "도를 생각하는 마음 잠깐이라도 놓지 말라"고 경책한 은사도문 스님과, 아들을 수행자의 길로 떠나보내면서 "그냥

그렇게 가야 하느냐"고 애기한 어머니의 질투에 가까운 말을 채적으로 삼아왔다.

그런만큼 간화선에 대해 몸소 느끼고 연구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수행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되어있다.

선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간화정로>를 발간한 것은 스님이 중국유학시절 선종 조정 100여곳을 참방하고, 중국의 여러 선지식을 만나고, 백담선사 남화선사 등에서 7안거를 성만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 특히 대혜선사가 수행과 교화를 했던 천목산 경산사 능인선원의 폐허가 된 간화조정을 보고 간화선풍전작에 일조하리라 마음먹으며 해제절이면 틈틈이 써온 원고도 한류했다.

그러던 2004년 덕숭총림 정혜사 능인선원에서 동안거 정진중 '대중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간화선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수좌 설정 스님의 말에 용기를 얻어 책을 엮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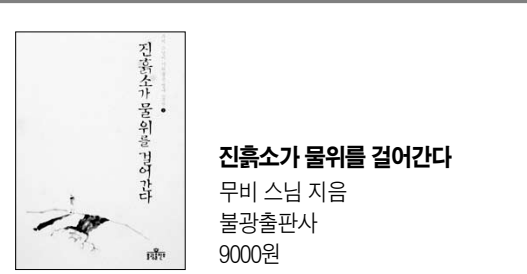
된 것이다.

책의 구성은 1장 선종 수증론(조기선종, 남북종, 조사선), 2장 간화선의 성립배경(문자선과 폐풍, 무사선의 폐해, 목조선과 목조사선), 3장 간화선의 성립(공안참구의 연원, 간화의 성립), 4장 간화선의 이론과 수행(간화선 수행의 전체, 공안의 의미와 목적, 간화선의 특징, 화두참구, 간화선의 선법), 5장 현재 간화선풍에 대한 반성으로 나누어져 있다.

부록으로는 '무' '이 뭐고' 화두에 대한 월암 스님의 의견과 설명, 대혜종고선사 행장을 소개하고 있다.

월암 스님은 "가치관의 충돌과 혼돈의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선이 문명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많은 대중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여러사람들에게 선수행의 나침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진흙소가 물위를 걸어간다  
무비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9000원

## 무비 스님이 가려뽑은 명구 100가지

한생각 미혹하면 넓은 하늘에 구름이 일어나서 위는 밝으나 아래는 어둡다.  
한 생각 깨달으면 바람이 어두운 구름을 쓸어 상하가 청정하게 맑아진다.  
더러움과 청정함이 일어나게 된 까닭이 여기에 있으며, 범부와 성인이 지어지게 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금강경오가해 주

이 글귀에 대해 무비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은 최근 펴낸 <진흙소가 물위를 걸어간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모든 문제의 열쇠는 우리들의 한 생각이다. 이 한 생각이 어두어지면 온갖 악을 다 저지르고 분에 없는 욕심을 부린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쓴다. 그 수단과 방법으로 남에게 해를 입히고 남을 괴롭히는 일이다. 그래서 세상이 부정과 부패와 억울한 일들로 얼룩져 있다."

만약 한 생각 선량한 마음을 일으켜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려고 하면 그 마음 세상은 또 밝아진다. 밤이 있고 낮이 있듯이 세상에도 선과 악이 반반이다. 그러므로 더러운 세상과 청정한 세상이 모두 한 마음의 작용이며, 성인과 범부의 삶도 또한 이 한 마음의 작용이다."

탄허 스님의 법맥을 이은 강백으로 조계종 승가대학 원장을 역임한 무비 스님이 뽑은 명구 100선은 이렇듯 불교의 핵심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스님은 명구를 소개한 뒤 읽는 이들이 가슴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해박한 해설도 덧붙였다.

이 책은 팔만사천 법문의 요체를 온전히 이해하기 힘든 현대인들에게 권할 만하다.

스님은 "이 작은 책을 거울 삼아 혼탁한 마음을 비취면 어떤 어스레 지혜와 해탈, 대자유, 대평화,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음을 자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 yosiamun.com 추천도서

- 마음 탓이다 시공사, 지수 스님, 9500원
- 자기를 속이지 말라 열림원, 정찬주, 9800원
-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말씀 300가지 민속사, 석성우외, 6000원
- 산사에서 만든 차 정리출판사, 이정애, 3만3000원
- 생활속의 예불문 효림, 김현준, 6000원

도서주문 (02)2004-8220

### '백제불교의 원류를 찾아서' 낸

한계주씨



## "역사탐방 하고나니 육도윤회한 기분"

"몇년동안 백제불교의 원류를 찾아 여러곳을 다녀보니 육도윤회(현상 아수라 인간 아귀 축생 지옥)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필가 한계주씨가 파키스탄과 실크로드 중국 등을 역사탐방한 뒤 최근 <백제불교의 원류를 찾아서>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2004년 2월 우연히 불상을 처음 만들고 백제에 불교를 전한 마라나타의 고향인 파키스탄의 초타라호르를 방문하면서 시작된다.

이어 둔황 운강 운문석굴을 비롯 보정산과 오대산 석굴의 불상을 접하면서 온화하면서도 잔잔한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밖에도 '시드니 기행' '힐체어를 밟고 미국을 가다' '신라 천년의 미소' 등도 곁들여져 있다.

"처음에는 불자의 의무로 간다라지방을 방문하는 귀한 기회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보고 듣고 한 것을 메모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한갓 여행자의 눈으로 다소 외롭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기행문 형태로 함께 여행한다 40~50여명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인 만큼 한계주씨의 글은 여행을 하며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자세하게 서술돼 있다.

특히 실크로드의 허물어지는 흙집앞에서 한때 집의 형태를 보였지만 결국 다시 흩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통해 생명이 돌이 아니라는 설명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인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씨는 "재미가 없어서 불교서적은 읽지 않는다는 지인들로부터 불교를 새삼 다시보게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한다. 그도 그렇듯이, 윤강석 굴에서 만난 가섭의 미소를 통해 부처님이 가섭에게 법문한 내용까지 소개하고 있으니 당연하다.

"고통에 시달리는 인간들은 아름다움과 진교를 맺음으로써 고통에서 해방된다"고 설명하며 티종교인들도 불교를 쉽게 이해하게 한다.

한계주씨는 "이번 역사탐방을 하고 책을 엮으면서 불교미술도 공부하고 인도 및 중국불교사도 공부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며 "역사는 우리한테 많은 얘기를 하는데 후세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백제 불교의 원류를 찾아서  
한계주 지음  
세존  
1만2000원

## 8·15 해방 이후 한국불교사 조명

한국 현대불교사 연구 김광식 지음 | 불교시대사 | 1만8000원



격동의 시기인 1945년 8월 15일 해방이후의 한국불교사를 집중 조명하는 <한국 현대불교사>가 발간됐다.

이 시기 불교사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김광식 부천대 교수가 그동안 발표한 논문을 정리하여 묶은 이 책은 불교계가 현대사의 흐름속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1부 '해방공간과 불교'에서는 8·15 해방과 전국승려대회, 봉암사 결사의 전개와 성격, 농지개혁과 불교계의 대응을 다루고 있다.

2부 '조계종단의 재정비와 그 성격'에서는 조계종의 성립과 역사적 의의, 해인총림의 어제와 오늘, 근현대 불교와 승려대회, 근현대불교사에 나타난 폭력문제를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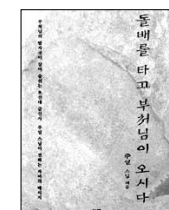
3부 '정화운동의 주역'은 정답, 성철, 서운, 월하, 탄허 스님의 교육과 불교개혁, 정화운동 등을 열거하고 있다.

### 새로나온 책

■ **한국인의 염불수행과 원효 스님** (정목 스님, 하늘북) = 양산 정토원에서 염불수행을 하고 있는 정목 스님이 원효 스님의 생애와 저술 그리고 정토사상, 신라 조선 고려시대 염불등 한국인의 염불수행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

저자인 정목 스님은 "염불의 강령, 그 근원은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 때부터 고이기로 시작했다"며 "시대는 변해도 염불의 강령은 고쳐서는 민중의 염원을 안고 도도히 흐르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염불에 대해 '깨달음을 성취하는 선'이라고 설명한다.



염불수행과 원효 스님

■ **돌배를 타고 부처님이 오시다** (주일 스님, 천심) =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가 고구려가 아닌 가야국을 통해 전해졌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의 저자 김해 초선대 금선사 주지 주일 스님은 인도 아유타국의 공부 허황옥이 16세때 오빠인 장유화상등 20여명과 함께 돌배를 타고 가야국으로 오면서 파사석탑을 싣고 왔음을 설명한다. 또 가락국 2대왕인 거등왕이 선인들과 함께 초선대 금선사 바윗돌에 새겨진 기국석(돌로 만든 바둑판에서 바둑을 두고 차를 마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 도서출판 부디가야 (051)865-4383 · 팩스 (051)865-4821 · 홈페이지: www.buddhagaya.co.kr · 편집디자인: 대한기획 (051)866-7818

# 불교 최초의 죽음학 해설서

저자의 죽음과 관련한 오랜 경험을 토대로 사실감있게 쓰여진 이 책은 죽음의 정의와 사상, 죽음과 법의 관계, 다양한 죽음 이야기, 죽음과 관련한 영가봉송의 제반 불교의식 등이 저자의 솔직하고 재미난 문체로 소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불교 죽음학

송 암 지음 / 신국판 / 정가 12,000원

이 책은 인종과 관련한 직종의 종사자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실증적 참고서가 되리라 자부한다. 아울러 누구나 체험할 수밖에 없는 죽음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길잡이가 될 것이다. 부디 이 책이 죽음에 대한 진솔한 상담자의 역할을 다하여 죽은 자에게는 인로왕보살이 되고 산 자에게는 삶이 보다 여유롭고 평화롭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